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3월 기도의 십일조 ◎

- * 일시 - 1일(월) ~ 3일(수)
- * 강사 - 조상용 담임목사

◎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어린이세례 안내 ◎

- * 교육기간 - 3월 7일(주일)부터 3주간 / 3부 예배 후
- * 신청 - 3월 6일(토)까지 / 사무실
- * 문답식 - 3월 27일(토) 오후 4시
- * 성례식 - 3월 28일(주일) 2, 3부 예배 시

[모임]

1. 정기당회 - 오늘 주일 3부 예배후 / 중예배실

[알림]

1. LMTC 30기 훈련생 모집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줌(Zoom) 온라인
 - * 기간 - 3월 23일(화)부터 12주간
 - * 대상 - 선교헌신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 등록비 - 10만원
 - * 신청 및 문의 - 오상욱 목사(010-8661-9273)

섬기는 분들

♣월요일당직 : 공휴일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사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 목 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 도 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 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2. 28 (NO. 63-9)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 배 사 역
2. 목 장 사 역
3. 가 정 사 역
4. 기 도 사 역
5. 제 자 사 역
6. 미 래 사 역
7. 복 지 사 역
8. 전 도 사 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 레 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안중근 집사(1부) / 임인성 장로(2부) / 전용주 장로(3부)
찬 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 경	시 9:1-14
설 교	시편의 묵상(9편) : 인생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조상용 담임목사
헌 금	384장
광 고	인 도 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 회 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 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가람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롬 1:16 “세상속의 십자가: 십자가를 증거함”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김영천 집사 * 인도: 김종명 목사 * 성경: 행 5-8장 “일곱 집사의 사명”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하현희 집사(1부) 남정혜 집사(2부) * 설교: 오상옥 목사 * 성경: 딤후 2:1-7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출애굽기, 레위기 - 담당 교역자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류창선 집사	안내위원		
	2 부	전용주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배정만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심재성 집사	차량운행	2호/ 이봉구 집사 010-8281-3779	
수요일예배	1 부	김옥진 집사		3호/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 부	문희정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부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1일)	최정숙 장영애 고한례 최영희
화 (2일)	이연옥 송정숙
수 (3일)	공종호
목 (4일)	안중근 국은희
금 (5일)	임명숙
토 (6일)	이종옥 이은진b 송순례
주일 (7일)	전용주 권연옥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28일(주일)	1일(월)	2일(화)	3일(수)	4일(목)	5일(금)	6일(토)
성경	출32-34	출35-37	출38-40	레1-3	레4-6	레7-9	레10-12

♠ 꽃꽂이

* 내주: 안중근 집사, 국은희 집사

♠ 출산

* 2교구 박원진a 집사(남2-4), 봉명선 집사(비래2-3) - 득남 / 13일(토)

♠ 환우

☞ 2교구

* 김현철 집사(교회관리, 남2-4, 조경희 집사 남편) - 무료 중앙수술 / 조재영 정형외과

☞ 3교구

* 김순남 권사(용운) - 뇌졸중 / 성모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 하 기	담 임 목 사
	증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3월 행사 안내

* 1일(월)~ 3일(수) / 기도의 십일조

* 7일(주일)부터 3주간 / 문답 교육

- 27일(토) 문답식

- 28일(주일) 성례식

* 23일(화) / LMTC 30기 훈련시작

* 28일(주일) / 종려주일

* 29일(월)~4월3일(토) / 고난주간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는 좌석 30%이내 대면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영성기도회는 좌석 3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도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기독교타임즈
- 옥천각계교회 · 총신대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신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동대전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가양중학교
- 군선교연합회 · 명석고등학교
- 주바라기선교회 · 내륙흥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시편의 묵상(8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시8:1~9)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윗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것을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영적인 자질이다. 다윗은 더 나아가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면서 찬양의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피조물 중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3~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연 속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았다. 다윗에게 있어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보여주는 표시였던 것이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밤하늘은 자신의 삶이 절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을 상징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밤하늘에 달아놓으신 빛나는 별들과 달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궤도를 놓치지 않고 주관하신다. 나의 걸음, 나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잘못되지 않도록 간섭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자.

2.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신분과 지위를 규정하는 말씀이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라는 것이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식이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 보다 조금 나은 고등한 동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자.

3.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6~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다윗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온갖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깨닫는다.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문화명령’이라고 한다(창1:27-28). 이 문화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상명령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복음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5일(금)	찬 420장 레 8:1-9	성경읽기 레 7-9장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1, 5, 9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 후, 제사장의 구별된 의복을 입힙니다. 이 옷은 흰 세마포 속 옷, 청색 겹옷, 띠, 예뻛, 흉패, 관, 금패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진 금패를 부착합니다(6~9절). 이처럼 위임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6일(토)	찬 8장 레 10:1-7	성경읽기 레 10-12장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이후 발생했습니다(1절).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점입니다. 두 제사장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모세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해야 할 행동들을 지시합니다. 그는 먼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전해 두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3절). 또한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치우도록 합니다(4~5절).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형제의 시체를 만질 수 있었지만, 가족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한 대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은 철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일(주일)	찬 151장 레 14:1-9	성경읽기 레 13-15장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본문은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있던 사람이 다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기 위한 1차 정결 의식을 보여 줍니다. 먼저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환부가 나온면 정결 의식을 진행합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 정결한 새 두 마리를 준비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또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 우슬초와 함께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병이 나은 환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살아 있는 새를 들에 놓아 쫓습니다. 병이 나은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고, 진영 안에서 7일을 지켜본 후에야 완전히 정결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정결 의식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청결과 질병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치로,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필요한 의식이나 모임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시켜 나와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임하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병욱(김정애) 강지균(강성희) 강희주(김종분) 광민근(박영자) 광영옥 구왕성 권대영 권소열(김순이) 권영숙 김경덕(이수진a) 김기성(박순규) 김동춘(유덕자) 김상연 김선철(이인자) 김연수 김옥단(유가람) 노정남(조정옥) 도소재 류창선(배영미) 박건희 박숙희 박영만(임형숙) 박옥자 박용일(김순희c) 박충순 서숙자 서은경(배인석) 신수인 심윤우 심윤중 안중근(국은희,안중경,충만치킨) 양주선(정태옥) 오명숙 오상욱(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육기례 윤동근(신영순) 윤명심(이상규) 윤종명(전숙인) 이서경 이수진b 이용정(이윤재) 이윤암(김종갑b) 이은희 이재균(김현진) 이종훈 이지연a 이형두 임정재(길선례) 전상순(정구영) 정고현(김옥자) 정상남(이은숙) 조갑생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경) 주정숙 진정숙 최순임(김미숙) 최윤희 최은지 최현순 한인숙 한춘녀 함수경 황덕순(김기환) 황안순 황인숙 황현숙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광영옥 권태중 김균영 김문수(이효정) 김신 김영천(남정혜) 김재원(길준순) 김형민(윤혜성) 김혜을 박명환 박정숙 서문복선 서성모 서은경 오상욱(김진남) 유춘성 이덕성(유희숙) 이수진b(민병곤) 이여진 이은희 이형두 임용식(우현주) 전상순(정구영) 정기조(이종옥) 조규연(서정순b) 조성일 주정숙 최국현(이영숙c) 최진수 하용호(문희정) 무명2

선교헌금

강지균(강성희)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광민근(박영자) 광영옥 구왕성 권대영(한인숙) 권소열 김균영 김기성(박순규) 김기웅 김기웅(공혜숙) 김동춘 김선자 김숙자b 김영미 김예원 김옥단 김인숙 김혜자 김효수(김주영) 도소재 민병곤(이수진b) 박건희 박덕천(강순애) 박숙희 박영만(임형숙) 박종권(주정화) 박충순(오명숙) 박희인 서숙자 서은경 신수인 양갑진 양영준(서영순) 양주선 오세종(김윤정b) 오승희 유덕자 유은정 윤동근(신영순) 윤종명(전숙인) 이길천(윤석의,이연주,이승준) 이남운(한도희) 이서경 이선옥 이신순(서정자) 이용정 이은숙 이재균(김현진) 이종훈(이지연a) 이지영(이상규) 이춘자b 이형두 이혜정 임은미 전상순(정구영) 전옥순 정고현(김옥자) 정상남 정정이 정태옥 조갑생 조상용(김혜경,조성환,조은혜) 조성일 주정숙 진정숙(권문수) 최민지 최순임(김미숙) 최윤희 최재민 최현순 한일민(고은주) 한춘녀 황현숙 6남전도회 6여전도회

신년감사헌금 신수인 이자영 성탄감사헌금 신수인 이춘자b

장학헌금 윤재룡 전용주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일(월)	찬 50장 출 35:20-29	성경읽기 출 35-37장	여호와께 드렸으니
<p>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백성은 이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 모세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본문에 ‘모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말씀을 들은 누구나 헌신했음을 밝힙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모세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모든 자’(21절), 즉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자원하여 드린 예물’(29절)입니다. 셋째,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드렸습니다. 갖고 있었던 은과 놋, 조각목, 여인들은 실을 다듬거나 뿔아서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24~25절).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드릴만한 예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참된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은 ‘모두’가 ‘이미 자신에 주신 것’을 ‘자원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p>			
2일(화)	찬 315장 출 39:32-43	성경읽기 출 38-40장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p>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모세에게 가져 왔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여 줍니다. 성막을 조립하기 위해 작은 갈고리로부터 제사장의 옷에 이르기까지 성막에 관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막을 위해 수고한 시간은 대략 6-7개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감사와 감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고(40:34),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감격과 감사,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누린 감사와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p>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일(수)	찬 336장 레 2:11-16	성경읽기 레 1-3장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p>본문은 소제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할 음식 재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선 소제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는 누룩과 꿀입니다(11절). 누룩과 꿀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발효가 지나치면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는 소금입니다(13절). 누룩과 대응을 이루는 소금은 기본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금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연약의 진정성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군주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약속하는 결단이고,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전한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입은 긍휼함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 거하도록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p>			
4일(목)	찬 259장 레 5:1-6	성경읽기 레 4-6장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p>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열거됩니다. 만약 증인이 자신이 본 것과 아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1절).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모르고 달아도 죄가 되며, 지키지도 못할 일을 경솔하게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도 속죄가 필요합니다(2~4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저지른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속죄제를 통해 낚으치게 하십니다. 이는 속죄제의 목적이 무심코 지은 죄까지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본질상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사소한 죄까지도 자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p>			